

# 본회 제 29차 대의원 정기총회 이모저모

2007년 최우수 지부에 전북 김제지부 영예  
우수지부에 연천지부 · 서귀포지부 · 창녕지부 · 홍성지부 · 괴산지부 선정  
신임감사 이병규 청도지부장, 차창희 예산지부장 선출



▲ 대한양돈협회는 2월 26일(화) 대전 사또 그레이스 호텔에서 제2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2월 26일(화) 대전 사또 그레이스 호텔에서 제2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김동환 회장을 비롯해 이병모, 최희태, 하태식, 정종극 부회장과 각 도협의회장, 지부장 등 총 118명(위임 20명 포함시 13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2007년 수지결산 승인 및 2008년 사업계획 승인 등 안전심의회와 협회 활동보고,

감사보고, 농림부장관상 수여, 협회장 감사패 전달, 최우수·우수지부 시상, 우수직원 표창 등이 있었다.

## ▣ 양돈인 단결하여 양돈산업 어려움 극복 다짐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 한해 양돈산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협회가 양돈인의 지속속에 국



▲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농림부장관을 대신해 평소 축산업 발전과 정책참여로 양돈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공로로 원주지부 심맹섭 지부장①, 서천지회 두혁중 지부장②, 가평지부 신성균 지부장③, 가축방역 유공에 기여한 공로로 양평지부 박세창 지부장④, 지도기획부 안혜성 과장⑤, 해양배출 감축에 기여한 공로로 창녕지부 여영성 지부장⑥에게 농림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내 양돈산업의 문제점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양돈인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국내 양돈산업은 꾸준히 성장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김동환 회장은 "돼지 생산안정제, 사료안정기금 등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양돈농가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양돈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인 전국 각 지역의 양돈 지도자들은 향후 우리 협회와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지도자의 책임과 동참을 강조했다.

## ■ 38억423만원의 2008 회계년도 예산안 확정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선현 전무이사로부터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모금 및 집행 현황, 한·미 FTA 비준 및 한 EU FTA 협상 반대 활동,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활동, 3개 분야 특별위원회 활동,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 국산우수 돼지고기 판매인증제 사업,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 조사 추진 현황, 사육단계(양돈장) HACCP 교육사업, 케이블 TV 공동 캠페인 전개 추진결과 등 지난 해 협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대의원들은 ▲제1호 의안 : 2007년 수지결산 승인(안) ▲제2호 의안 : 2008년 회비 부과 기준 승인(안) ▲제3호 의안 : 2008년 사업 계획 승인(안) ▲제4호 의안 : 2008년 수지 예산 승인



▶ 우수지부에 선정된 각 지부장들과 김동환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2007년도 최우수 지부에는 김제지부(지부장 김현욱①)가, 우수지부에는 연천지부(지부장 홍성만②), 창녕지부(지부장 여영성③), 과산지부(지부장 전병철④), 서귀포지부(지부장 손용조⑤), 홍성지부(지부장 한홍재⑥)가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지부와 홍성지부는 대리수상)

(안)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안)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들은 2007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지결산, 2008년 회비부과 기준(안) 2008년 사업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전년비 32억 4천6백만원이 감소한 38억423만원의 2008년도 수지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2008년도 양돈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FTA 시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질병 근절을 통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

전한 돼지고기 생산, ▲가축분뇨 문제 해소를 지속 가능한 양돈업 제시, ▲양돈산업 중심체로서의 협회 역할 강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자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돼지 자급률 설정 및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안정화 대책 수립, ▲한국형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PRRS 안정화 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모색, ▲돼지 열병 청정화 추진을 통한 돈가 안정화 도



◀ 양돈인들은 선진 양돈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미 FTA, 한·EU FTA 반대, 돼지 열병 청정화사업 적극 동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국산돼지고기 공급, 친환경자연순환농업 적극 동참, 자조금 제도의 정착과 자조금 거출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이동문 진주지부장)

모, ▲양돈장 HACCP 사업 확대로 돼지고기 안정성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농가 현장 교육 사업 강화, ▲지자체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대책 수립, ▲가축분뇨 공동·공공처리 확대로 위탁 처리 체계 도입, ▲식품위생법 하위법률 정비를 통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분야별 특별 대책 위원회 운용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협회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돼지 열병 청정화사업에 적극 동참 결의

한편 양돈인들은 선진 양돈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해 백신 100% 접종 등 돼지 열병 청정화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 등 외래전염병 예방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항생제 잔류없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국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국내 양돈산업을 말살시키는 한·미 FTA, 한·EU FTA를 적극 반대하고, 국내 양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양돈자조금 제도의 정착과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양돈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 발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 이사 및 신임 감사 선출

또한 대의원들은 최근 경기지역 김영호 이사, 경남 지역 이희환 이사가 사퇴하고 16대 임원 선임시 경북지역 이사 미션임으로 결원이 된 자리에 이사 보선을 통해 박호근 포천지부장, 이상국 울산지부장, 최재철 성주지부장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으며, 신규 감사에 이병규 청도지부장, 차창희 예산지부장을 선출했다.

▣ 2007년 최우수지부에 김제지부 우수지부에 연천지부·서귀포지부·창녕지부·홍성지부·괴산지부 선정

정기총회에 앞서 김동환 회장은 2007년도 지부조직을 활성화하고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2007년도 최우수 지부에는 김제지부(지부장 김현욱)가, 우수지부에는 연천지부(지부장 홍성만), 서귀포지부(지부장 손용조), 창녕지부(지부장 여영성), 홍성지부(지부장 박승구), 괴산지부(지부장 전병철)가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돈**



▲ (사진 왼쪽부터) 차창희 신임 감사, 정종극 양돈협회 부회장, 이병규 신임 감사, 김동환 양돈협회장



▲ 김동환 회장이 감사패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 양돈협회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온 농림부 축산경영과 임지현 주무관①, 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인철 과장②,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③, 삼원기업 조선화 대표④에게 협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어 열심히 노력해 온 김포지부 이장학 총무, 흥보부 박영우 대리, 제1검정소 강명숙 서기, 경북도협의회 이인선 간사, 진천지부 송선용 간사, 익산지부 하은하, 순창지부 신명옥 간사, 함양지부 장선봉 기사에 우수직원 협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